

제2금융권 가계대출 6월부터 더 조인다

DSR 본격 도입...저축銀·할부 90%, 보험 70%↓
주담대·유가증권 담보대출·신용대출 영향 클 듯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다음달 17일 도입된다. 이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잡으려는 정부의 이번 조치로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을 확정했다.

DSR(Debt Service Ratio)은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주택·전세보증금·예적금·유가증권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이 포함된다.

다음 달부터 제2금융권에도 DSR을 관리지표를 도입하면 저축은행과 캐피탈(할부금융)사는 평균 DSR을 모두 90%로 낮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

취야 한다. 제2금융권 DSR 시범운영 결과 상호금융(261.7%)과 저축은행(111.5%)의 올해 1분기 DSR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농·수·신협 등 상호금융조합의 DSR은 시범운영 기간 261.7%로 파악됐다. 상호금융은 2021년 말까지 160%로 맞추도록 했다. '조합 출하실적'도 농·어업인 신고소득 자료로 추가됐다. 추정소득 인정범위는 80%에서 90%로 확대했다. 인정·신고소득 자료가 여러 건이면 7000만원까지 인정된다.

■제2금융권 DSR 관리기준 목표

(자료: 금융위원회)

평균 DSR(2021년 말 목표)	
상호금융	160%(2025년까지 80%)
저축은행	90%
보험	70%
여전사	카드사 60%·캐피탈사 90%

DSR 70% 초과대출 비중 한도는 저축은행이 40%, 캐피탈이 45%다. 90% 초과대출 비중 한도는 저축은행과 캐피탈 모두 30%다.

보험사는 현재 73.1%인 DSR을 70%로 낮춘다. 고(高)DSR 비중은 25%와 20%로 제한한다. 카드사는 현재 66.2%인 DSR을 60%로 낮춘다. 고DSR 비중은 25%와 15%로 제한한다.

DSR은 규제비용을 초과해도 금융회사 자율적 판단으로 대출 취급이 가능하다. 개별 차주의 대출 한도가 일률적으로 줄어

드는 것은 아니다. 서민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한 정책자금대출과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은 DSR 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과 대부업체 대출은 DSR 산정에서 빠진다.

은행들은 지난해 10월31일 DSR을 관리지표로 도입했다. 시중은행 기준 평균 DSR을 40% 이하로 맞추고, 고DSR인 70%와 90% 초과대출 비중을 15%와 10%로 제한했다.

관리지표 도입 전(지난해 6월)과 도입 후(올해 1분기)를 비교하면 은행권 전체 DSR이 71.9%에서 47.5%로, 고DSR이 23.7%와 11.5%에서 19.2%와 8.2%로 낮아졌다.

제2금융권의 DSR 본격 도입은 취급 비중이 큰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해 시범운영 기간 DSR이 높게 나타난 유가증권담보대출(스탁론)과 신용대출 등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038.80 (+15.48) ↑ 금리(국고채 3년) 1.63 (+0.01)
- ↓ 코스닥 689.33 (-2.14) ↓ 환율(USD) 1188.80 (-5.10)



광주은행, 건강한 여름나기 무더위쉼터 운영

광주·전남·수도권 142개점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6월 3일부터 9월 20일까지 광주·전남·수도권 지역의 무더위쉼터를 운영한다. "고객경험 경영의 모든 영업점(142개점)에서 무더위쉼터 실천을 위해 올해도 폭염대응 종합대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실시하는 광주은행 무더위쉼터는 폭염을 일시적으로 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영업시간(오전 9시 ~ 오후 4시) 내에 운영한다.

영업점 방문 시 더위를 식힐 수 있는 시원한 생수와 부채가 무료로 제공될 예정이며,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뛰어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은행 설수환 미래금융기획부장은 "광주은행을 찾는 분이려면 누구라도 편하게 더위를 식힐 수 있도록 광주·전남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全 영업점에 무더위쉼터를 운영한다"며 "고객경험 경영 실천을 위해 올해도 폭염대응 종합대책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고객님들께 가장 사랑받고 신뢰받는 은행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은행은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공식 후원은행으로서 대회 참가 선수 및 관계자, 방문객 등을 위해 별도 제작한 부채 1만개를 임시장구에서 배부함으로써 세계수영대회를 찾는 사람들의 더위를 식히고, 동시에 대회 홍보에도 적극 앞장 설 예정이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노사발전재단 광주일자리센터 '인생 3모작 취업 동아리' 지원

노사발전재단 광주중앙년일자리희망센터가 '신중년 인생 3모작 성공을 위한 취업동아리' (이하 취업동아리)를 지원한다.

취업동아리는 더 나은 일자리를 희망하는 중장년들로 구성된 소그룹이다. 센터는 이들 동아리가 인적 네트워크 형성, 정보 교류 등을 통해 스스로 구직능력을 향상시켜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 16일부터는 13명으로 구성된 취업동아리 1기 '어울림'이 발족했고 29일부터는 건설기능인력 도배기능사 과정 수료자 6명이 모인 2기 '어울림 방'이 첫발을 내디뎠다.

센터는 경력 목표별 동아리를 구성해 일대일 맞춤 컨설팅, 모임장소·식비·간식비 등을 지원한다.

'어울림 방'은 31일까지 사흘 간 외국인 근로자 숙소 개선사업에 도배 자원봉사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명숙 광주중앙년일자리희망센터 소장은 "광주지역 중장년이 자발적 취업능력 향상을 통해 재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취업동아리 지원을 올해 중점 사업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센터는 만 40세 이상 중장년층 대상 '생애경력설계서비스'부터 퇴직지원·제도약 프로그램, '신중년 인생 3모작 패키지' 등 맞춤형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문의 062-531-5712.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전남 최초 명품 면세 백화점 내일 문 연다



오는 6월1일 문을 여는 광주·전남 최초 명품 면세 백화점 '임팩트 럭셔리 몰'. <㈜우노 제공>

광산구 우산동 '임팩트 럭셔리 몰' 샤넬·프라다 등 60여개 브랜드

광주·전남 최초의 명품 면세 백화점이 오는 6월1일 광주에 들어선다.

㈜우노는 "명품 면세 백화점인 '임팩트 럭셔리 몰'(IMPACT Luxury Mall)이 다음달 1일 광산구 우산동 220-14번지(옛 아름다운 컨벤션)에 문을 연다"고 30일 밝혔다. 약 5000㎡(1500평) 규모로 꾸며지는 백화점에는 샤넬, 루이비통, 구찌, 프라다 등 60여 개 해외 명품 브랜드의 20여 개 매장이 들어선다.

이들 브랜드 제품은 공식 협약을 맺은

이탈리아 현지 법인 'IMPACT & AMIKO'를 통해 공급 받는다. 개별 병행 수입 방식이 아닌 이탈리아 현지 법인 직영으로 매장을 운영한다는 것이다. 명품 수입구조를 효율화해 모든 제품의 판매 가격을 일반 면세점 가격으로 책정했다는 것이 우노 측 설명이다.

이에 따라 내국인도 누구나 한도 없이 해외 명품을 면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외국인 관광객 면세판매장으로 지정돼 해외 관광객은 기존 면세점 가격에 부가세까지 환급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누릴 수 있다. 60여 개 입점 브랜드는 매 시즌 트렌드에 맞춘 신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상품에는 바코드를 부착해 정품이

력 관리제를 엄수한다는 방침이다.

여경구 우노 대표는 "광주·전남 지역의 명품 소비는 매년 늘고 있다"며 "이번 개장으로 명품 소비의 역의 유출이 줄어들고 100명이 넘는 고용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노는 국내 대형 여행사, 광주·전남 관광협회 등과 협력해 해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전라권 쇼핑관광 주요 거점으로 백화점을 키워낸다는 계획이다.

개장날에 맞춰 열리는 매장 내 300평 규모 갤러리 미술관에서는 개관을 기념해 '한국을 대표하는 100인의 작가전'이 열린다. 문의 062-946-3333.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전 '전력설비 테러·화재대응 실제훈련'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중갑)은 지난 30일 경기도 시흥시 345kV 신시흥변전소에서 군·관·경 합동으로 '전력설비 테러·화재대응 실제훈련'을 실시했다. 김중갑 한전 사장이 실제 훈련에 앞서 훈련을 격려하고 있다. <한국전력 제공>

회사 사정상, 신창동 근린상가, 급매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전남공업고 옆 사거리 코너)
- 대지면적 52평, 건물 170평
- 4층중 2층 201호 전체, 준주거지역
- 주위에 고등학교/대학교 단독주택 아파트 상업용건물등 혼재, 위치 좋음
- 사무실, 병원, 헬스장등 모든 업종 오픈가능
- 감정/시세-11억
- 매매 - 7억 5천만원

문의. 010-6834-7400